



플러신학교내 동아리 '원테이블' 승인 논란과 관련해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학준 교수(우측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로 잘 알려진 플러신학교가 지난해 동성애 관련 동아리 '원테이블'(OneTable)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부총장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정오 플러신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후안 마티네스(목회리더십) 부총장을 비롯해 황진기(신약학)·이학준(신학과 윤리)·이광길(신교학) 교

수, 민중기 목사(중현선교교회)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학교 측은 먼저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중순 AP통신의 보도로 인해 플러신학교가 지닌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원테이블 학생 그룹의 실제적 성격에 대해 왜곡·전달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원테이블' 승인 논란에 대해 "결혼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세운 영속적 언약으로, 이

같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교내 공동체 규범(Community Standards)을 근거로 대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중전의 복음주의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논란을 해소했다.

학교 측은 이어 원테이블 승인 사실과 관련해 "교내 24개 학생그룹 중 하나로 동성애자 학생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그룹(LGBT group)이 아니다"면서 "성과 동성애 주제에 포함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성

플러신학교 "원테이블, 동성애그룹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중전 복음주의의 관점 유지... 성 주제 토론그룹일 뿐

경적·목회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토론하도록 허락된 그룹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테이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친 동성애 성향의 자료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학교 한 관계자는 "당초 원테이블이 건전하게 토론하는 그룹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1년간 친동성애적 성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미처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주의와 선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아울러 "오늘날 가정과 교회는 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과 씨름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롯 혼전 성관계, 동거, 외도, 이혼, 성 중독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신학교에서 이 같은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테이블은 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학문적 그룹에 불과할 뿐, 결단코 동성애적 행위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한인교회 목회자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한 민중기 목사(중현선교교회)는 "목회를 하다보면 종종 동성애 성향을 지닌 교인들도 접하게 된다. 이들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라며 "하지만 만약 동성애 성향을 지닌 교인이 결혼 주례를 부탁해 오면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토마스 맥 기자

만인이 '제사장'인데 '담임목사'는 왜 필요한 걸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나 말씀 전하는 권위는 인정해야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으로부터 지금의 '개신교'(Protestant)가 탄생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수많은 변화들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 '만인제사장'(萬人祭司長) 혹은 '만인사제' 정신인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이론. 이것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지금처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목사'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담임목사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걸까.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수 없다고 역설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 특성과,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관습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목회자 혹은 신학자들

의 분석이다. 늘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한 문화에 익숙하기에,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를 그와 같이 대한다. 그러나 이는 종교개혁이 부르짖은 '만인제사장'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현수 교수(평택대 조직신학)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성직자들에 맞서 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 만인제사장의 의미"라며 "그렇기에 성직에 계급이 있을 수 없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담임목사를 포함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잘못이 발견될 경우 평신도들이 이를 지적하고 견제를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 담임목사의 권위를 아예 무시하거나, 주어진 자격 및 직분을 넘어선 것까지 요구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분쟁을 겪는 교회에서 주로 목격되는데, 담임목사의 반대편에 선 교인들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인격을 모독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일삼고, 전통적으로 담임목사나 장로 등 교회 내 일부 직분자에게 허락된 권한들을 무리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담임목사와 평신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담임목사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갑중 교수(백석대 총장, 신약학)는 "만인제사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므로, 성직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닌 섬김의 자리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이기도 하다. 담임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면으로 이어짐
 김진영 기자

바이올라대학에 1930년대 예수 구원 간판 복원돼

명문 기독교학 바이올라대학이 LA 다운타운 6가와 호프 스트리트에서 운영되던 1930년대에 학교를 상징했던 간판을 다시 내걸었다. 이 학교는 당시 건물에 "예수께서 구원하신다(Jesus Saves)"는 문구가 적힌 네온 사인 간판 2개를 설치했었다. 이 간판들은 학교가 그 건물을 떠나 라미라다로 캠퍼스를 옮긴 후에도 수십년간 빛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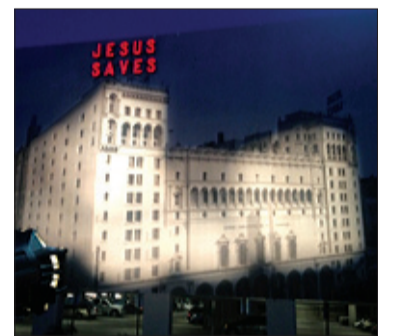
그러다 한 개는 진 스킷 목사가 구매해 LA유니버시티교회로 옮겼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아내가 목회하는 글렌데일 페이스센터로 옮겨졌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 LA 다운타운의 과거 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에이스호텔이 이 건물을 소유, 사용하고 있다.

바이올라대학의 배리 코리 총장은 "총장에 취임한 2007년부터 이 간판들을 우리 학교로 되찾아 오려고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이 간판의 모습을 복제한 것을 본 캠퍼스에 게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리 총장은 "이 문구는 우리 학교가 105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한다"고 전했다. 바이올라대학의 새 간판은 과거 건물과 그 건물에 설치됐던 이 예수 구원 문구를

사진처럼 함께 복원한 것이다. 바이올라대학의 과거 간판은 여전히 LA 다운타운 에이스호텔에서 그 빛을 LA를 향해 비추고 있다.

한편, 에이스호텔은 이 예수 구원 간판을 학교 측에 팔 계획이 전혀 없다. 호텔 측은 이 간판이 건물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 마일 거리에서도 한 눈에 보이는 이 간판은 이 호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영신 기자



바이올라대학은 과거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재구매하는 협상이 결렬되자 과거 건물과 간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복원해 현 캠퍼스에 게시했다.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직영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2013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안내
 개강 2013년 8월 19일(월)

■ **학교안내**
 본교는 성경의 절대권위를 믿는 보수개혁주의 신학교로서 1977년 개교했으며 1979년 제3회 총회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신학교로 헌납되었습니다. 본 총회는 1981년 북미주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APARC)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본교는 성경적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육으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 **주정부 인가 (BPPE)**
 ■ **ABHE 정회원 학교**
 ■ **연방교육국 인정학위 인준기관으로 안수 받은 후 군목사역을 할 수 있음**

■ **알려드립니다.**
 본교는 총회가 인준 승인한 학교와 이사회로서 본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총회 학력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에서 동일 신학교 이름으로 운영된다고 광고된 학교는 본 총회와 상관이 없으므로 그 학교 졸업생들은 본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학위과정**
 유치원교사, 원장자격프로그램 (Preschool Teacher * Director Certificate.)
 학 부: 기독교문학사 (B.A.C.E.)
 대학원: 기독교학석사 (M.A.C.E.) / 목회학석사 (M.Div)

■ **특전**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Form 발행
 각종장학금제도 (성적, 근로, 동문, 총회 외 다수 장학금혜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한 정보부조금 안내

■ **개강일: 2013년 8월 19일 (월)**
 ■ **영성수련회: 2013년 8월 19 - 20일 (월-화), 저녁 7:00**
 강사: 엄영민 목사 (총회장,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 **등록마감: 2013년 8월16일(금)**

■ **강의 장소**
 Los Angeles: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Orange County: 추후발표 예정
 Valley 지역: 추후발표예정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총장 황은영 박사 이사장 양수철 박사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310)986-9797, (213)235-7395
 iruskapc125@gmail.com
 입학상담 : Rev. Peter An (310)986-9797

비거주선교 성공은 '현지 동역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전통적으로 선교사는 본국을 떠나 선교 현지에 체류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하지만 선교 활동이 제한적이며 선교사가 장기 체류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도 전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비거주선교'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중국어문선교회는 격월간 소식지 '중국을 주께로' 최신호에서 '틈새전략, 중국 비거주선교'라는 특집 기사를 다뤘다. 본지는 이 내용을 인용해 비거주선교 및 비거주선교사에 대한 개념과 방향 그리고 한계와 실제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註)>

중국에서 비거주선교를 하고 있는 정한길 선교사는 '비거주선교 이렇게 하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지금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외치고 있는 대변혁의 시기"라며 "선교에 있어서도 개념, 접근 방법,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비거주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창의적 접근지역 혹은 선교 제한지역에서는 뼈를 묻을 때까지 일생을 바쳐 사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시대 요청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비거주선교"라고 강조했다.

정 선교사는 서구 선교단체들 가운데 비거주선교사 개념이 좀 더 발전하여 '선교전략조정가'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선교전략조정가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리서치하거나 네트워킹하여 현지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선교지에 적합한 전략 개발, 현지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현지인 동원 등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의 비거주선교사는 사업가, 관광객, 교사 등의 신분으로 주로 한국이나 중국, 인근 이슬람 국가들에 거주하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중에는 현재도 한국, 미국 등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 중국을 단기 방문하는 목회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 중국 외에서 선교단체를 이끄는 선교지도자 등이 포함된다.

정 선교사 자신은 중국 동쪽의 한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현지인 선교동원, 네트워킹, 코칭 사역을 주 사역으로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선교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

국의 특성상 정부의 감시는 무시할 수 없으나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단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며 "목사 선교사는 단기적인 신학연장교육(TEE) 프로그램 등을 하고 선교 지도자는 현지 교회의 선교 훈련, 동원훈련 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중국을 단기 방문하여 우후죽순으로 사역했다며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 훈련 받지 않은 목회자들의 사역은 의욕과 달리 긍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한길 선교사는 중국 비거주선교의 긍정적 사례로 G국에서 15년 동안 성경번역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A선교사가 중국의 성경번역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사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성경번역 컨설턴트'로 사역하는 것을 들었다. 또 두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자 미국 파송 선교사인 B선교사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중국 대학생 및 젊은이들을 동원, 훈련시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B선교사는 훈련 받은 청년들을 동남아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가정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훌륭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비거주선교의 부정적 사례로 그는 한국교회에서 비거주선교사로 파송 받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인 C선교사를 예로 들었다. C선교사는 자주 들리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돕고 있지만 중국어를 못해 조선족 비서를 채용하며 가정교회 재정과 현지인 신학생 월급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현지인을 섬길지 훈련 받지 못하고 비거주선교사로 파송 받는 경우 교회, 신학교를 섬기는 것도 모두 물질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며 "현지 교회, 신학교도 재정 독립은커녕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적 사례로 "중국 개방 초기부터 현지에 들어가 사역했던 D선교사는 강제출국으로 비거주선교를 하게 됐으나 현지에서 시니어 선교사로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비거주선교에 만족감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현지인을 섬길지 훈련 받지 못하고 비거주선교사로 파송 받는 경우 교회, 신학교를 섬기는 것도 모두 물질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며 "현지 교회, 신학교도 재정 독립은커녕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적 사례로 "중국 개방 초기부터 현지에 들어가 사역했던 D선교사는 강제출국으로 비거주선교를 하게 됐으나 현지에서 시니어 선교사로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비거주선교에 만족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한길 선교사는 중국 비거주선교의 긍정적 사례로 G국에서 15년 동안 성경번역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A선교사가 중국의 성경번역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사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성경번역 컨설턴트'로 사역하는 것을 들었다. 또 두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자 미국 파송 선교사인 B선교사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중국 대학생 및 젊은이들을 동원, 훈련시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B선교사는 훈련 받은 청년들을 동남아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가정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훌륭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비거주선교의 부정적 사례로 그는 한국교회에서 비거주선교사로 파송 받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인 C선교사를 예로 들었다. C선교사는 자주 들리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돕고 있지만 중국어를 못해 조선족 비서를 채용하며 가정교회 재정과 현지인 신학생 월급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역은 오랜 세월이 걸쳐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거주선교사가 주도하는 사역은 자칫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비거주선교의 궁극 목표는 현지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거주선교사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만 마지면 허둥지둥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며 "비거주선교사가 자기 중심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면 빠른 시간 내 현지교회 중심으로 사역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고 돌아오는 형태의 비거주선교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거주선교사라면 자신이 선교사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거주선교사로 일하면서 '나일론 선교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를 해보니 마음먹기에 따라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대충 해버릴 수도 있었다"며 "선교사도 명함만 선교사이지 실제로 선교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비거주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선교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비거주 형태의 사역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역을 잘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충해도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선교사 신분이라면 선교사답게 자신을 잘 관리하여 확실하게 사역해야 하고 그걸 자신이 없으면 선교사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야고보 선교사는 비거주선교사도 당연히 현지 영혼과 접촉하기 위해 현지어 공부를 해야 한다며 "53세에 선교사가 된 나도 현지어 공부부터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내게 현지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목회 경험을 살려 현지어로 설교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부족하나마 통역 없이 사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선교사로 활동하려면 우선 가족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주 가정을 떠나 외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선교사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만일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거주선교사도 선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배 선교사들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사역을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비거주선교사는 현지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특징 때문에 한 두 지역에서 한 두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타문화권 선교 훈련은 필수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

마음먹기 따라 효과적 선교 가능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 \$35)

약력 북경중의과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2013년도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수강 신청 안내

- 1. 학과 수업 내용** * 개설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1 / 컴퓨터 / 건강체조 / 서예 / 바둑 / 노래교실 / 공예 / 뜨개질 / 성경영화 / 월별특강
* 컴퓨터 과목 신청시 컴퓨터는 개인이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노트북 \$350~\$500 예상)
* 공예과목 신청시 일정 금액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 2. 학기 일정 안내**
1)기간 : 8월22일~11월 21일(14주간) 매주 목요일
2)시간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3)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 3. 대상 :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120명까지)
- 4. 학비: 한 학기 \$30.00**
- 5. 등록기간: 8월 4일(주일) ~ 8월18일(주일)**
- 6. 접수 및 문의처 :**
(솔로몬 지혜원 앞)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담당교역자: 서미수 전도사 / 부장: 지길준 집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에녹회 회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과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동성결혼 합법화 한달 만에 韓 성공회에 고소 위협

영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식을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성공회가 고소당할 위험에 처했다.

영국의 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은 성공회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일 계획이며 이는 영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이란 현지 교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과된 법안은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들에 남겨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의 반대자들은 동성에 옹호 인권주의자들이 이같은 예외에 대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번에 고소를 계획 중인 커플 역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기쁘지만,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교회가 영국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영국 보수단체 결혼을위한연합(Coalition for Marriage)의 대표 콜린 하트는 “아직 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회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빗 캐머런 총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졌었고, 교회에 선택권

을 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은 결국 종교적 신념을 가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전제주의적 정책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1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최종 통과됐으며,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의 이번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미국의 종교자유 미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현정 기자

“아시아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순복음세계선교회 아세안총회에 속한 선교사 14가정, 35명을 초청해 (아세안총회 원주민 선교사 가족 초청대회)를 개최했다.

선교사들은 이 기간동안 교회 내에 자매결연이 이뤄진 구역과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고,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다녀왔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관광지를 둘러 보고 LA 다저스 야구경기 등을 관람했으며 한국의 유명 CCM 가수인 강명식 씨가 인도하는 선교사 가족 위로 찬양의 밤에도 참여했다. 마지막에는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에서 성도와 선교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10개 국가에서 선교사 14명, 자녀 21명이 참석했다. 아시아 선교는 선교 제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미국 방문은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미국을 체험하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적극 함

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선교사를 초청하고 몇 가지 행사를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교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6개월 간 한 구좌당 10불씩 선교 작성 헌금을 해서 총 9만여 불을 모금했다. 선교사와 함께 하는 구역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광 일정, 여행 일정을 성도들이 자원 봉사하고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한치완 선교사(아세안총회 총회장)는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베푼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위로를 주셨다. 각자의 선교지로 돌아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지난해 중남미총회 소속 원주민 선교사 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의 시간, 성도들에게는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기에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선교사들을 초청한 것이었다.

김영신 기자

감정조절 힘들 때 반대행동 취해보는다면...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감정 조절법’ 세미나 열려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건강세미나가 지난 25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감정 조절법’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로 종교지도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25일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제 5차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건강서비스 안정영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섰다. 먼저 안 코디네이터는 “감정은 특정 자극이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심장이 뛰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라며 “감정의 생리는 특정 감정에 다양한 상태로 연결된 신경계의 각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감정은 인간,

동물,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어떤 사람이나 문화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존 본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생활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속의 응어리를 자각하고, 분노나 공포감을 유머, 즐거움, 투쟁 의지 등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키라. 화가 날 때는 침착해지도록 자신을 다독여야 한다”며 “또 상황이 요구하는 감정을 만든다. 왜냐하면 긍정적 영향을 주고 회복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술이나 담배,

과식 습관, 운동 습관, 영양섭취, 전화 습관, 사무실과 가정에서의 습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7가지 정신단련이 있다. 자기암시, 부정적 생각 통제, 공포감의 둔화, 글쓰기를 통한 감정교체, 감정의 예행연습, 정신집중 훈련, 긍정적 사고연습 등이 있다”고 했다.

안 코디네이터는 감정조절법의 목적으로 “감정 이해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몸의 어디에서 감정을 느끼는지 경험한다. 감정을 과도처럼 생각해 살짜 기대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 감정조절법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반대행동으로 감정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며 “두려움이 생길 때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슬픔이 있을 때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행동으로 활성화시키며, 수치감이 들 때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다. 또 부러움이 생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세며, 질투감이 들 때 질투의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더 나아가 “1단계로 감정으로 말로 표현해본다. 말로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의 원인과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 2단계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감싸고 용기를 주보자. 이는 생각과 신체 및 행동의 변화를 주어 감정조절,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3단계로 감정 조절법을 미리 찾아 훈련해둔다. 명상, 숫자법, 운동, 대화, 산책, 일기 등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요청 문의:(800)854-7771(정신건강서비스 및 위기 핫라인)
211(LA카운티커뮤니티 인포라인)
(800)229-7708(알콜 마약서비스 핫라인)
(888)979-3800(가정폭력한국어 핫라인)
(877)727-4747(자살방지 핫라인)
토마스 맹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원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앞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20돌 맞은 코너스톤교회, 大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셀러브레이션 2013〉 10일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서 개최 美 유명 뮤지션 대거 참여 “복음전파의 장” 역할도



코너스톤교회 성도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일 열린 찬양콘서트 〈셀러브레이션 2013〉을 앞두고 몸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마음에 감동과 주님의 은혜를 선사하는 색다른 찬양콘서트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2013〉이 오는 8월 10일(토) 오후 6시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Ceritos Center for Performing Arts)에서 열린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화사역에 힘써온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콘서트다.

이번 무대에는 유명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동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선다. 특히 색소폰 연주자로 유명한 론 브라운

을 비롯해 데릴 크로스(베이스), 마코토 미야시타(일렉트릭 기타), 레이포드 그리핀(드럼) 등 아티스트들과 드웨이 스미스(베이스), 프랭크 오티가(타악기), 크리스천 김(피아노), 정한경(키보드) 등이 참여한다. 또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이종용 목사와 코너스톤교회 프레이즈팀·성가대·청년부·중고등부 성가대 등이 참여해 지난 수개월간 갈고 닦아온 솜씨를 뽐낸다. 특히 이번 콘서트를 위해 미 대중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보이스 트레이너인 존 프러커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성법을 훈련한 데 이어 본 무대에서도 7할 이상의 지휘를 맡으며 활약할 예정이다.

코너스톤교회 성가대는 평소 흥겹고 발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온 것으로 지역교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이종용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대의 장소를 빌려 이런 규모의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개 হল리웃 보울과 같은 규모있는 무대에 유명 가수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외부적으로 공연을 갖는 만큼 화려함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사를 받은 자들이 철저히 준비

하고자 노력했다. 창립 20주년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맹연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교회 차원의 창립기념 축제이자 이웃과 불신자를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꾸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션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공연에 참여했던 론 브라운이 연결고리가 돼 다른 뮤지션들의 우정출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콘서트가 열리는 센터의 좌석규모는 1800석으로, 덴버 콜로라도에서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조명 등 전문회사가 참여해 무대를 꾸미게 된다. 프로그래밍은 현대 음악으로 구성되며, 스킷 드라마와 어린이 찬양대도 무대에 참여해, 1~3세가 함께 아우러져 진행된다. 또한 론 브라운의 마약 간증도 있을 예정이다.

이 목사는 “공연을 올리기까지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다. 너무도 치열한 나머지 마치 전쟁 같다. 쉽지 않지만 과정을 즐기려고 한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코너스톤교회에 주신 문화의 사명을 드러내길 원한다.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는 잔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이번 콘서트와 관련, 안내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교인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섬기려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10불.

문의: (310) 530-4040
토마스 맹 기자

자마 ‘토탈 리더십 포럼’ 9월에 또 한차례 개최

남가주 목회자 대상 ‘목회자 토탈 리더십 포럼’ 강사는 김춘근 교수, 대니 한 목사

자마(JAMA)가 주최하는 ‘목회자 토탈 리더십 포럼’(Total Leadership Forum)이 오는 9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열린다. 장소는 LA에서 샌디에고에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칼스배드-바이더-시리조트(Carlsbad by the Sea Resort, 850 Palomar Airport Rd. Carlsbad, CA 92011)에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벤추라에서 열린 ‘목회자 토탈 리더십 포럼’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아 다시 열리게 된 것.

지난 포럼에는 진유철 남가주교회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민경엽 OC교회 회장, 김명락 SD교회 회장, 구진모 사우스베이교회 회장, 이준우 벨리지역교회 회장 등 다수의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 사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올 9월 포럼 역시 강사로 자마 대표 김춘근 교수와 동부에서 2세 목회를 하고 있는 대니 한 목사가 나선다.

김춘근 교수는 대학에서 지난 38년간 리더십을 가르쳐온 인물로, 그동안 LA와 미 주요 도시들을 비롯해 한국, 뉴질랜드, 브라질 등지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차례 해왔다. 김 교수는 일반 리더십뿐 아니라 영적 리더십, 본인의 사회적·영적 경험, 2세 사랑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니 한 목사는 16살에 이민 온 1.5세로, 노스웨스턴대학교를 졸업한 시카고 출신이다. 프린스턴신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현재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다.

주최 측은 “김춘근 교수의 탁월하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으로 꾸며지는 강의와 그의 삶이 묻어낸 간증은 듣는 이의 영적 시야를 활짝 열어주고 가슴에 식었던 불을 다시 붙여줄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체적인 리더십과 미주 한인 1, 2세 목회자간 화해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다뤄진다.

참가비는 100달러. 현재 남가주 지역 담임목회자(사모 동반 가능)를 대상으로 선착순 60명 모집하고 있다.

문의: (323) 933-4055(JAMA)
토마스 맹 기자

탈북고아 돕는 성금, 한슈나이더 재단에 2만불 쾌척



(왼쪽부터)한슈나이더 재단 아더 한 대표, LAKMA 최승호 이사장, LAKPO 윤임상 음악감독.

LA한미음악인협회(LAKMA, 단장 최승호)와 LA 코리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LAKPO, 지휘 윤임상)가 지난 12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한 ‘평화음악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한슈나이더(Han-Schneider) 재단에 전달했다.

24일 가든스위호텔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LAKMA 최승호 이사장은 2만불을 한슈나이더 재단 아더 한(Arthur Han)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슈나이더 재단은 탈북아동, 캄보디아·아프리카 고아들을 돕는 일을 펼치고 있다. 성금 2만불

은 북한 고아들의 식료품과 의약품 구입비로 쓰인다.

주최 측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감싸, 음악을 통해 하나로 만드는 잔치를 주최한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합창단 90명 중 한인이 48명, 나머지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 △오케스트라 64명 중 8명이 한인, 독창자 4명 중 3명이 한인 △청중 1700여명 중 약 3분의 1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히든웨이)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OC 애나하임에 소재한 **커널대학교**

경 신임 이사장 김화영 박사 죽

2013년도 학생 모집

대학교 과정(BA) 4년	
* 신학(B.Th.) * 기독교 교육(B.C.E.) * 기독교 상담(B.C.C.) * 선교학(B.M.)	교종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과정(Master) 2~ 3년	
* 기독교 교육(M.E.) * 신학(Th, M.) * 목회신학(M.Div.) * 가정상담(M.F.C.) * 선교학(M.M.)	대졸 및 동등학력자
박사과정(Doctor) 2~ 3년	
* 기독교 교육(D.C.E.) * 목회학(D.Min.) * 기독교 상담(D.C.C.) * 선교학(D.Miss.)	대학원 및 동등학력자

성경/신학 영어 ESL 과정 / 원격교육
가정상담사 자격증 (Marriage Mentorship) / 영성 상담사 자격증
케이르(Keir 성경연구인도사 자격증 / 1 - 20 발행

커널 대학 가을학기(2013) 오픈 하우스 및 1일 세미나
Kernel University 2013 Open House

보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연구, 외도나 이혼, 사별 및 가정 문제의 상담과 회복 등, 실천적 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1일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목회자들과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건강 생활이나 사역의 현장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일 상담 세미나” : 2013년 8월 17일(토) 오전 9:30 am - 12:30 pm

- 1) 건강한 영성(Healthy Spirituality) - 심 명구 교수(Ph.D.)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영성 추구” (How to help change people)
- 2) 외도문제 상담(Affair Repair) - 단 페터스 교수(Dan Fetters, D.E.T.)
“불륜의 원인과 관계 회복” (Affair Issues and Restoration)
- 3) 위기가정 상담(Trauma/ Grief Share) - 금 병달 교수(D. Min.)
“이혼 및 사별 가정 회복모임” (Divorce Care/Grief Share) / 학사 안내

2. 대상: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크고 작은 가정의 위기를 만나 충격적 경험을 하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3. 장소: 커널 대학교 www.kernel.edu
주소: 332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Western과 Knotts 사이)

4. 등록비: 20 불(교재 및 간식비 포함)

커널 대학교 Kernel University **등록 문의 : 714) 995-9988 , 714) 287-2458**
www.kernel.edu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4-2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의 신앙이 모세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사명적 의욕을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11지파에게 경계를 정하여 지역을 나누어 주었고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고센을 유월절에 출발 시켰습니다. 그때 남녀노유 약 200만이 출애굽 하였으나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갈렙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에 이르게 하고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서 환경의 조건은 넘치게 기대하는 허욕이 많습니다. 이것은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이 다가와서 백성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애타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1-13절에서 출애굽의 과정과 모세의 시종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 지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달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

각하고 감지되지하면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더 잘 섬기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지 않고 유브라데스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참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리스도 밖에 없고,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문을 당해도 하늘나라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늘의 소망을 결신하려는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그 때 우리를 요긴하게 들어 쓰십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공인하시고 보증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신실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는 사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2대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어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애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버리기 싫으면 차라리 멸망의 길을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16-18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임이니이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질책을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즉,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자가 안타깝게 부르짖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과 목회자의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그것을 아는 목

자의 양태의 잘못된 신앙을 볼 때 불안하게 보이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양태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더 정열을 쏟는다면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분명한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이율배반적이고 배은방덕한 삶은 멸망을 재촉하는 삶이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에 따르며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저분한 생각과 오염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대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잘 믿는 척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후회하고 울 일입니까?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의 횡포에 시달리지 말고 힘껏 굽주리며 고문 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위협 당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은 변함없고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이 영망진창이고 신앙생활이 아닌데 자기 형편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왜 그러느냐는 식의 원망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보고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짓은 생각지 않고 죄값에 대하여 오히려 불평만을 하나님께 더 늘어놓는 것은 더 많은 채찍질을 청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사는데 다른 이성과 놀아나는데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시켜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기업

의 후사로 우리를 가꾸시며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 인생의 결과가 비참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성과 애정을 성도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정성스레 섬기면 질투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채찍질하고 징계하심은 아직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새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1-25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한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배풀었더라

여호수아는 다짐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써 백성들의 신앙고백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임을 확인하고 징증을 잡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피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음으로 흘린 피를 담아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며 이 언약은 죽을 지경에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뜻을 좇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교회는 바로서 있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예수만 바라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화광동진 (和光同塵)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너무 잘나서 말 붙이기도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이야기기를 하다보면, 그는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화 중에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모두 자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허풍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입니다. “야야 웃기는 소리 그만해,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네가 잘못된 거야!”, “그곳에 나도 자주 가는데, 네가 틀렸어!” 한번도 남의 말을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그에게 친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의 잘난 척 때문에 친구들은 그에게 “원래 그런 애”라는 붉은 꼬리표를 달아 주었습니다.

“화광동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광채

를 줄이고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곤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박수를 쳐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멍석만 깔아주면 누구나 한 두 가지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품질 좋은 우량종 인간들을 무조건 좋아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박수 쳐주고 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난 사람들이 안하무인적으로 교만하기까지 한다면, 분을 참으면서 그 꼴을 지켜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척 살아야 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것과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내 곁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잔치자리에서 가게 될 경우에는, 항상 누추한 말씨에 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빛을 줄여서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만 빛내려 하는 사람은 욕을 먹지만,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세출의 뛰어난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 아니라, 자신의 빛을 줄여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지혜롭게 화목을 추구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기실 것입니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2)



이 영 두 목사

영적 성숙에 무관심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온통 자기 욕망에 매여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안에 뿌려지고 있는 씨들이 생명의 씨앗인지 사망의 씨앗인지 분별하지를 못한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이 문제를 놓고 영적 성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혈과 육에 매이지 하지 말라: 고전 15:50-54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에 덕을 입는 것이고,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피조물인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여 덕을 입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신의 혈과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 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복된 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 혈과 육에 매이지 말고 썩을 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다. 또한 바울이 말한 ‘혈과 육’은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인들은 자기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타락하고 멸망받을 사악한 일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죄로 인해 사망에 벌침을 쏘인 자들이다. 오늘날 사회를 한 번 돌아 보라. 사망의 벌침에 쏘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들다. 분명 겉모습은 교인인데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행

동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몸의 사육에 매이게 되면 혈과 육으로 살아가게 되고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썩을 것에 종노릇 한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죄는 첫 번째 지을 때가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하여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마치 발뒤꿈치에 굳은살이 배어 바늘로 찔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이며, 영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이 사망의 씨앗인지 아니면 생명의 씨앗인지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다름이 없다.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I live in Santa Monica.
저는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습니다.
▷What is good in Santa Monica?
산타모니카는 뭐가 좋나요?
▷The ocean beach is good in Santa Monica.
산타모니카는 바닷가 모래사장이 좋습니다.
▷Where does your sister live?
당신의 여동생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She lives in Burbank.
그녀는 버뱅크에 살고 있어요.
▷Where do you go on Sunday?
일요일에는 어디에 가나요?
▷We go to the church on Sunday.
저희는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English (중급 영어)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Here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He is the One I told you about when I said, "Someone else will come. He is greater than I am, because he was alive before I was born." (John 1: 29-30)

다음날 요한은 예수가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이다.

<요한복음 1:29-30>

English (고급 영어)

On Sunday last, I made a trip into the countryside with a friend of mine. The houses and gardens there which we saw on the way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in our town. Young people nowadays are apt to think themselves different from their elders and somewhat superior.

지난 주일, 저는 제 친구 한 사람과 더불어 시골 동네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가며 본 그곳의 집과 정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그것과는 무척 달라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의 연장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보다 우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2 Chronicles 7:14

NEW AWAKENING CONFERENCE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JAMA 대회는 2세들을 중심으로 1세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나라에 대한 OWNERSHIP을 갖고 이 나라 청교도 신앙회복의 주역으로 신임받도록 준비시키는 컨퍼런스입니다.

NEW AWAKENING CONFERENCE

2013

- 일시** 11월 8일(금) 오후 5시 - 9일(토) 밤 9:30까지, 10일(주일) 오후 4-7시
- 장소** 은혜한인교회 FULLERTON, CA
- 참가비** \$70

- 2세 대회** YOUTH, 대학생, 초등학생, 사역자, PROFESSIONALS
- 1세 대회** 전체집회와 전문가들이 인도하는 다양한 훈련 및 선택강의(영어/한국어)들이 제공됩니다.
- 한어권 청년대회** 전체집회와 전문가들이 인도하는 다양한 훈련 및 선택강의(영어/한국어)들이 제공됩니다.
- 강사** Os Guinness, Bob Goff, Jae Park, Stephen Chong, 한기홍 목사, 권준 목사, 박수웅 장로, 김춘근 교수 (현재 확정된 주강사) (이외에 30여명의 영어권 강사들과, 40여명의 한어권 전문가들이 초대됩니다.)
- 찬양인도** 링컨 브루스터, 소향, 뉴어웨이킹 밴드

한어권 선택세미나

- ▶ 지금은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 ▶ 교회가 인물들을 키워야합니다
- ▶ 역사속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들
- ▶ 미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 ▶ 청년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 ▶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대안
- ▶ 한인 디아스포라 비전과 사명
- ▶ 기독교 세계관
- ▶ 창조와 진화 무엇이 과학적 사실인가?
- ▶ 크리스찬의 재정권리

- ▶ 우리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 ▶ 미혼 청년들을 위한 결혼교실
- ▶ 미혼 남녀를 위한 독신기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 ▶ 성경적이고 행복하고 목적있는 부부생활
- ▶ 목회자세미나
- ▶ 사모세미나
- ▶ QT 세미나
- ▶ 예수치유와 건강 세미나
- ▶ MOM/PGM이 인도하는 선교세미나
- ▶ 자녀교육 세미나(유아, 초등, YOUTH)
- ▶ SINGLE PARENT들을 위한 세미나
- ▶ 기러기 가족들을 위한 세미나

JAMA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1세 대상

지금은 미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 일시** 11월 7일(목) 오후 4시 - 11월 8일(금) 오후 5시
금요일 발부터는 JAMA New Awakening 컨퍼런스로 연결됩니다.
- 강사** 한기홍 목사, 유진소 목사, 진유철 목사, 박성규 목사, 권준 목사, 김지현 목사, 김춘근 교수, 강순영 목사
- 참가비** \$100 등록, 교재, 식사제공: JAMA Conference 참가비 포함

CONTACT JAMA : 4201 WILSHIRE BLVD. STE 445 LOS ANGELES, CA 90010 T. 323.933.4055
www.JamaNewAwaken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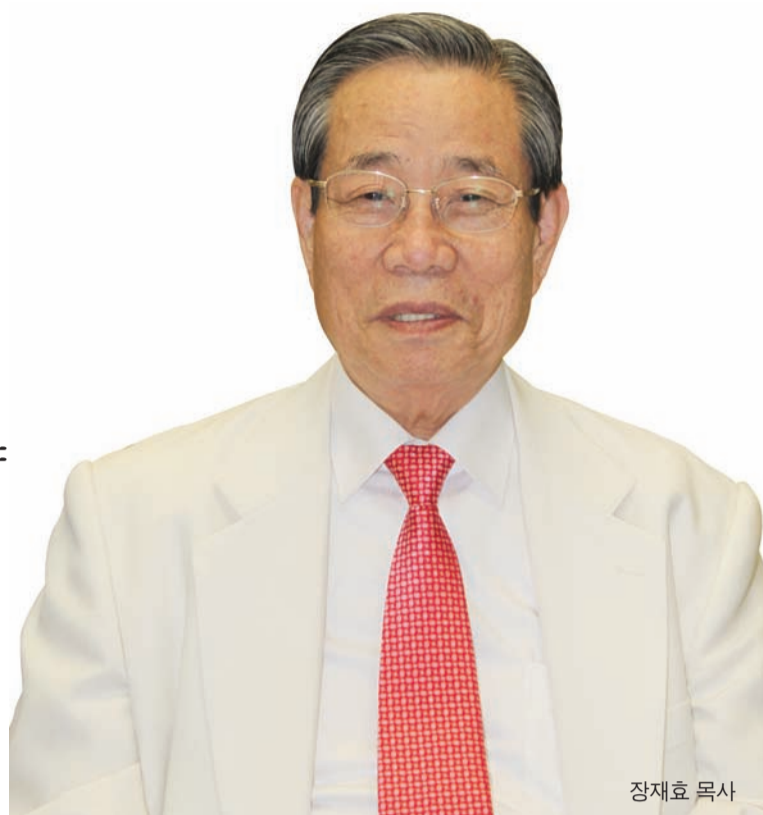


사임을 거부당한(?) 장재효 목사, 그의 반 세기 목회

개척 당시 키 173cm에 체중 49kg... 허약 체질

사탄의 훼방 클수록 교회 향한 주님의 기대와 사명 커

구원 보증 받기 위해선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심령 거듭나야



장재효 목사

미주 교계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교회 부흥회를 이끌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장재효 목사(한국 성은교회 담임)가 그의 '반 세기 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저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를 지난 6월 말 펴냈다.

장 목사는 현재 팔순이 된 고령에도, 주저함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고령을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려는 의사를 성도들에게 나타냈음에도, 성도들이 '장재효 목사님의 지속적인 시무 당위성에 대한 결의서'를 발표하면서 계속 남아있게 됐다. 전 성도들의 결사반대로 사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지난 50여년 간의 목회 보고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 초 교회 개척 당시 여러 간증들을 보면, 요즘 시대에는 들을 수 없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그중 몇 면을 들춰보면 이런 것들이다. 장재효 목사의 나이가 마흔도 채 안 됐을 때, 교회 부흥을 위해 목양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키 173cm에 체중이 49kg밖에 안 될 정도로 몸이 허약해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약수동으로 심방을 가다 약수동과 옥수동 경계지점인 언덕에 이르르면 장충체육관 쪽에서 세차게 불러오는 바람에 밀려 뒷걸음질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장 목사의 건강을 위해 한 집사가 약병아리 백숙을 만들어 저녁에 사택으로 가져오게 된다. "소반에

올린 냄비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에 군침이 돌지만,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의 모습이 음식 위에 오버랩된다. 비록 나는 굶더라도 병들고 허약한 양태부터 먹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박동하기 시작한다. 음식을 가져온 분에게 '냄비는 내일 드릴 테니 어서 집으로 가져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세요'라고 말하면, 내 속내를 눈치 챈 그는 오히려 폭 놀러 앉으면서 '저를 빨리 돌려보내고 이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시는 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 내외분이 다 드시는 것을 보면 갈 거예요'라고 말한다(16쪽).

장재효 목사는 하는 수 없이 작은 그릇에 조금씩 떠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우리가 잘 먹을 터이니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고 애원하시피 하

여 돌아가게 한다. 이후 길을 우회해서 입신 빈혈증으로 영양실조가 되어가는 Y집사에게 전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뜨거운 눈물의 감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저자는 계속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면서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깊이 할수록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며 주님과 관계가 재정립되고 신앙생활에 무한한 활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마련이지만, 사탄의 대적과 훼방이 심할 때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을 의지해 나가면 확신에 찬 믿음이 더욱 담력을 얻어 힘있게 일어서게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부흥하게 되지요." 성은교회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계속 전진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초월하는 것이고, 자기는 죽고 새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계란이 21일 지나면 병아리가 된다 할지라도 껍질을 깨지 못한다면 병아리가 된 채 껍질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병아리가 된 후 알 속이 답답해서 있는 힘을 다해 쪼아서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자기 아들을 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무엇이 가까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데 잘못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된다."

저자는 또 핍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사탄이 아무리 훼방할지라도, 진리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합성기도로 더욱 결속되어 힘 있게 대응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중에 안 사실은, 사탄의 공격과 훼방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사명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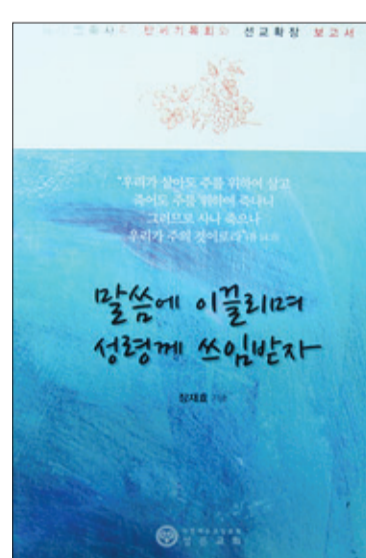
장재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여집사에게 은혜를 갚다 △성은교회의 시련 △인분을 몇 시간 동안 파낸 이야기 △선교를 베풀어도 계속되는 고난 △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잡힐 뻔한 이야기 △선교사의 마인드 △중국 선교의 어려움 △다큐멘터리 제작 △교회론 △전도론 △한국교회 가 할 일 △성령께 이끌리어 쓰임받는 사람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성은교회 성도들 수십 명이 장 목사를 향해 구구절절한 감사의 글을 썼다.

2010년에 한국일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민감동 그랑프리 대상(종교 지도자 부문)을 받기도 했다. 그의 목회 일대기는 굿뉴스미션워싱턴필름(대표 이태봉 목사)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라고 하는 턱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자기라고 하는 턱이 예수님 편에, 신령한 하나님 편에 들어서기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토마스 멩 기자



장재효 지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은교회 | 182쪽

말씀새로운교회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는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말씀새로운교회, 다운니 남부지역으로 이전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가 새성전으로 예배처소를 옮겼다. 위치는 105번 프리웨이와 다운니 애비뉴가 만나는 다운니 남부지역으로, 지난 28일 주일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일예배에서는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의 핵심 내용이 전해지며, 주일 영어예배는 오전 10시 래리 제임슨(Life Gate-Larry Jameson) 목사가, 한국어 예배는 12시 45분, 그리고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각각 김희창 담임 목사가 인도한다.

말씀새로운교회 담임 김희창 목사는 말씀과 영성, 지성과 영성을 겸비

해 목회와 신학대학원(ABSW, UCS) 강의를 균형 있게 인도하고 있으며, 크리스천헤럴드 방송의 설교와 중보기도의 시간 인도 등으로 이민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김희창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기독교장교회 회장으로 사역해 왔다.

한편, 말씀새로운교회가 그간 사용해온 코리아타운 내 예배처소(2975 Wilshire Blvd, #415, LA)는 앞으로도 상담실 및 경건운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213) 268-9367
▷주소: 13376 Downey Ave, Paramount, CA 90723

남가주중부교협, 광복절 68주년 성가제 개최

곽소건 목사 “다음 세대에 광복의 의미 되새기는 계기”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남가주중부교협이 개최해온 연합성가제가 11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전경.

남가주중부교협(회장 곽소건 목사)이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제16회 광복절 기념 성가제를 11일 오후 4시에 세리토스동양선교회(석태운 목사)에서 개최한다.

곽소건 목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과 흥해를 건너온 기쁨을 악기를 동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렸다. 우리 민족 역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지역교회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며 “점점 이민사회에서 광복의 의미가 희석돼 가고 있는 이때에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전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으로 보답하고, 지역교회가 우애를 다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산하 140여 교회

의 마음을 모아 이번 성가제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가제에는 가나안교회, 감사한인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회, 생수의강선교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조이풀남성선교중창단, 숙명칸테모스중창단, 헤세드남성중창단, 은혜찬양물동선교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29년 전에 조직된 남가주중부교협에는 에너하임과 알테시아, 벨플라워, 부에나파,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놀워, 다우니, 라하브라, 라미라다, 라팔마, 레이크우드, 로스 알라미토스, 산타페스프링스, 사우스게이트, 스탠턴, 웨스트민스터, 위티어 등 18개 지역 140여 교회가 속해 있다.

▷문의: (714) 329-7906

토마스 맹 기자

김화영 이사장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다”

커널대 신임이사장 취임예배 드려



커널대학교 이사장 취임예배 후 참석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하임에 위치한 커널대학교(박태문 총장)가 지난 31일 동대학 강당에서 이사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김화영 박사는 한국에서 성형의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와 애양원에서 10년간 근무해 왔으며, 도미 후 아틀란타성서신학대학에서 신학 및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학과 WHO 아시아 필드에서 한센병 관련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아은행 이사장, ALBERT 대학 총장직을 맡아 봉직하고 있다.

예배 및 취임식은 인도 금병달 학장, 설교 박태문 총장, 학교소개 심명구 부총장, 취임사 김화영 이사장, 축도 박태문 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메시지를 전한 박태문 총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펼

치실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터위에 학교가 오늘날까지 운영돼 왔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새로 취임한 김화영 이사장은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해 살아왔다”며 “고기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커널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커널대학은 1년 2학기제(봄학기, 가을학기)로 운영 중이며, 한 학기 15주간으로 구성된다. 모든 학생은 입학 후 담당 지도교수와 멘토십 관계를 맺으며 학사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문의: (714) 995-9988, (714) 287-2458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 솔라등 시연회 열려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 솔라등 시연회가 지난 25일 선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열렸다.

선교방송 GMAN과 기독교 주간지 크리스천월드가 주관하는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의 솔라등 시연회가 25일 오후 부에나파에 위치한 선미니스트리(SON Ministry)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운동은 전세계 약 20억이 넘는 인구가 전기, 전화 등의 문명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지에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등’을 보내 야간에도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 선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솔라등’은 김만덕 장로(전 LG연구소 연구원, 벤처사업가)가 개발 총괄한 제품으로 오지에서 최적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자력을 이용해 철에 쉽게 탈부착 가능하며 LED 등으로 만들어져 책상 위의 스탠드, 랜

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체 충전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을 5-40V 충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제품은 8월 중 출시 예정이며, 9월에 1차로 2000세트, 12월에 2차로 5000세트를 연결된 선교지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GMAN 측은 밝혔다. 아울러 오지에 교회와 선교지간에 일대일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한 관계자는 “전기가 없는 오지 선교지에 태양열을 보냄으로 선교지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 (714) 522-7766, (714) 576-0901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이되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T.(562) 691-0691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562) 802-4959 / Cell: 714308-7038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T.(714) 788-3677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 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성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세리토스장로교회 18184 E. 178th St., Artesia, CA90701 T.562-677-7777 / F.562-677-7778 / ilovepc.org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949) 857-9425 / F.(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949) 514-4346 / F.(949) 305-3951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년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714) 893-1652 / kccroc.org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213) 447-8169 / F.(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을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이스라엘 탐방

유대 광야 수도사들의 음식: 빵 (1)

수도사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꽤 오래 살았던 수도사들에 대한 기록은 있다. 시릴에 따르면, 시리아(Cyriac)는 107세에 사망하였고, 요한 헤시카스트(Hohn Hesyachast)는 105세까지 살았다. 유티미우스는 97세, 사바스는 94세에 사망하였다. 데오도시우스 수도원에 속한 한 수도사가 남긴 기록에, 모스쿠스(Moschus)는 113세까지 살았다. 수도사들이 이토록 오래 살았던 이유는 광야의 건조한 기후와 수도원의 평안하고 절제된 생활, 그리고 신선한 음식 때문이라 생각된다.

유대 광야 수도사들의 주요 음식은 빵이었다. 파란 라우라(Laura of Pharan)에 속한 작은 굴에서 경건 생활하는 수도사들에게 정한 채리톤의 규칙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약간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배부르게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음식으로는 소금을 넣은 빵, 마실 물은 샘이나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마셔야 한다.” 제라시무스는 자신의 라우라에 거하는 수도사들에게 빵, 물, 종려나무 열매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 모스쿠스가 전하는 탐 라우라(The Laura of Towers)에 거한 한 수도사는 딱딱한 빵 한 개로 하루를 지냈다. 또 파란 라우라에 거한 어떤 수도사는 매 4일을 빵 한 개로 지냈으며, 주일에는 수도원의 교회에서 성찬식 때의 빵만 먹었다고 하였다. 이런 기록에 따르면, 수도사들은 적게 먹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빵은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접대용 음식이었다.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 순례자들 400명이 유티미우스 라우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빵 한 개와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제공받았다. 데오도시우스 수도원에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빵이 필요했다. 책임을 맡은 수도사들은 처음에는 한 사람 당 빵 1 리트라(litra/327g)로 제한했지만, 데오도시우스는 빵을 자유롭게 배식하라고 했다.

남은 빵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 없었다. 모두 모아서 나중에 다시 제공되었다. 이런 내용은 페트라 출신의 데오도레(Theodore)가 밝힌 데오도시우스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인 8월 15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형제들 앞에는, 각 식탁에 빵 한 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남은 많은 빵들을 모았다. 형제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었음은 물론이고... (중략) 남은 것도, 햇볕에 말린 것도, 며칠간 충분했다.”

일반적으로 빵은 부피를 줄이고 운반하기 쉽도록 건조되었다. 마른 빵은 사순절 기간에 사막으로 들어가는 수도사들에게 좋은 음식이었다. 사바스와 그의 제자인 아가페투스(Agapetus)는 양식으로 마른 빵 열 개를 담은

주머니를 가져갔다고 하였다. 팔레스타인은 곡식보다는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수도사들은 양식을 위하여 요단 동편으로부터 밀을 수입해야만 했다. 시릴은, 밀을 수입하여 대 라우라로 운반한 이야기를 하였다: “대 라우라의 청지기는 낙타를 이용하여 밀을 사해로부터 수도원까지 운반하기 위해 사라센인(Saracens)을 고용하였다. 밀은 사해의 동쪽 마케루스(Machaerus)에서 구입되었다.” 밀은 배에 실려 사해 서쪽으로 직접 운반되었다. 6세기 메드바 지도(Medeba map)에 사해를 건너는 두 척의 배가 표시되었는데, 아마도 밀을 수송했던 배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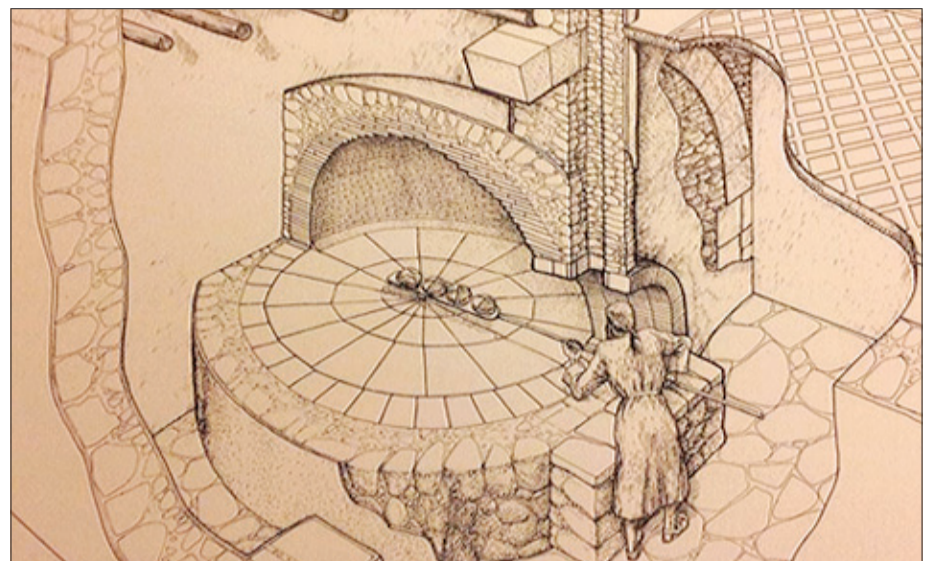
밀은 먼 거리 또는 광야의 고립된 지역의 수도원으로 옮겨야 하므로 주로 낙타 상인들이 운반하였다. 고대에 운송료는 아주 비싸 밀값의 두 배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밀은 중요했기 때문에 큰 수도원들은 밀을 수입하였다. 코치바 수도원은 트랜스요르단에 영구 대리인을 두고 밀을 수입했다. 밀을 수입하는 데 대리인을 고용했던 것은, 수도사들의 양식이 수입 곡식에 의존되었기 때문이다.

수도원 생활에 필요한 일부는 헌신된 성도들의 기부로 충당되기도 했다. 시릴은 사바스를 존경하는 메드바 사람들이 밀과 콩을 대 라우라와 사바스의 다른 수도원에 기부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수도원들은 추수가 끝나면 한 해에 필요한 밀을 구입하여 수도원 곡식 창고에 저장하였다. 수도원 곡식 창고의 좋은 예가 히르벳 에드-드이르(Khirbet ed-Deir)에서 발견되었다. 곡식 저장고는 수도원의 식당 옆 창고에 부착되었다. 이곳의 크기는 2.2x2.5m이다. 창고는 수도원의 남쪽 끝, 주방 근처에 건축되었다. 위치는 태양을 향해 있고, 오븐의 열기를 잘 받는 곳에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밀을 장기간 보관하는 데 건조한 곳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도원의 바닥은 모자이크나 깔끔하게 다듬은 돌로 처리했지만, 이곳 창고의 바닥과 벽은 두 겹짜 회를 발랐다. 방수 처리는 아닐지라도 효용 가치는 높았다. 저장 창고 바닥을 두꺼운 석회로 처리한 것은 액체가 아닌 곡식을 저장하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이런 비슷한 창고를 시네산의 세인트 캐더린 수도원에서 볼 수 있다. 캐더린 수도원의 곡식 창고는 광야 수도원의 곡식 저장고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이다.

밀은 손뿔들을 사용하여 빻았고, 빵은 수도원에서 구웠다. 고대의 수도원이 지금까지 계속해 온 기능 중의 하나는 빵을 굽는 일이다. 교회와 빵을 굽는 시설은 수도원 설립에 가장 먼저 지어진 건축물이었다(유티미우스 라우라, 네아 라우라).

빵 굽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는 오븐이다. 오븐에 필요한 나무는 광야에서 구했다.



히르벳 에드-드이르에서 발견된, 빵을 굽는 오븐 그림



수도원에서 사용된 빵에 도장을 찍은 틀

갑바도기아(Cappadocian) 출신인 조지의 이야기에 보면, 조지는 데오도시우스 수도원의 오븐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겉옷으로 내부를 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데오도시우스 수도원과 같은 큰 수도원의 오븐은 적어도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컸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히르벳 에드-드이르(Khirbet ed-Deir)에서 발견된 오븐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히르벳 에드-드이르의 주방 남쪽 끝에서 발견된 오븐은 높이 0.7m의 둥근 화덕 받침 위에 높이 1.5m의 오븐이 놓였다. 이글루(Igloo) 모양의 오븐은 직경이 2.4m에 이른다. 빵이 구워지는 오븐 바닥은 쪼개진 타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넓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오븐의 천정은 돔(Dome) 형식으로, 6세기의 오븐으로 완전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은 시네산 캐더린 수도원의 오븐이 유일하다.

수도사들이 구운 빵은 둥근 형태로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에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적어도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에는 십자가 도장,

곧 수도원의 특별한 도장을 찍어 구웠다. 빵을 구울 때의 경건한 분위기는 파코미우스(Pachomius)의 규칙에 잘 나타난다. “저녁에 반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침에 빵을 굽는 곳이나 빵을 반죽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말하지 말라. 수도사들은 빵이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성경을 암송할 것이며, 만약 무엇이 필요하면, 말하지 말고 노크로 표시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글·사진=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고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음,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장재호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호 지음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자로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교회주일학교의 '대안' 기독교대안학교 정규과정의 필요한 이유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상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新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다음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작은UBM작은자교회 담임 앤드류 김 목사의 글이다. (편집자 주)

“대안”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원래 있던 일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거나 수정하기 보다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는다. 필자는 3년 전 교회를 개척해 목회해오고 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마치 수십년이 지난 느낌이 든다.

교우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요?”라고 한다. 정말이지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강령과 같은 교회 사역, 한국 교회에서 청년시절 드렸던 철야를 이민교회 토양에서 한담시고 금요일 밤새도록 예배하고 다음 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교인들이 만나면 많은 만남이었는데, 거의 매일같이 만나다보니 교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서로 알아온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선데이 스쿨’이라는 교회교육 체계와 일반 교육 체계를 결합시킨 “기독교 대안학교(UBM School)”를 설립을 하게 된 것이 짧은 시간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흐른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가장 핵심 요인인 것을 발견했다. 필자 자신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별다른 특

징이 없다. 그저 배경도 없고 신앙의 유산이라고는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나 집안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이 전부다. 그런 목회자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하다. 자녀를 두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다. 또 세상의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공교육 제도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필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구할 때 얻은 결론은 세상의 제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과 자녀와 삶에 복을 받는다는 막연한 믿음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드러지는 예배가운데 주님께 구한 질문의 답이 “대안”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감으로 결국 “기독교 대안학교(UBM School)”를 시작하게 됐다.

이제 의식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미국의 현실과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앞선 교육과 보다 나은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도미했던 시절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미국에선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윤리나 도덕, 심지어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본적 사회 가치관마저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세속의 물질과 여론 혹은 일부 목적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그것이 사회 정의이며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인권이라는 역지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강요된다. 필자는 이



앤드류 김 목사
작은자 UBM 교회

러한 현실을 교회가 그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사인을 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필자도 처음 학교 교육을 시작할 때 마땅히 따를 예가 없어 고민했다. 개척 교회를 섬기는 일반 해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1년이 조금 지나 겨우 자립해가는 교회가 학교를 세워 무너져가는 기독교 교육을 세운다는 것은 빛좋은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보잘 것 없는 계란 하나로 커다란 암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홈스쿨(Home School)이라는 가정교육 체계를 교회로 도입해 교회의 성도들이 자녀 혹은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교회학교(Church School)”의 발상이 오늘의 기독교 대안학교(UBM School)가 탄생하게 된 계기다. 지난 2012년 9월 처음 학교를 설립해서 시작한 학생은 모두 5명, 목회자의 자녀가 4명이었고 교인 자녀 1명이 전부였다.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지금 학생수가 30명 정도 된다. 과정은 1학년(초중고) 전 학년 과정이 있다. 20명 정원을 목표로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 정원을 초과해서 교실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요즘은 매일같이 학교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학교가 명문이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증거다.

필자는 “기독교대안 학교”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또 자녀

들이 살아가게 될 내일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군대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마치 믿음의 자녀들이 나실인처럼 훈련되어질 때 그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학교 역사이지만 적지 않은 간증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의 성품과 공부를 하는 태도는 시작하지 한달도 되지 않아 바뀌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감사하는 인사를 통해 검증된 결과들을 봤다. 또 모든 부모가 학교를 보내며 기대하는 학업적인 성취도 나오게 됐다. 학교를 시작하며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학업능력이었다. 신앙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1주일 한번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 오고, 또 기독교적 교육을 하면 당연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했던 학업능력에 있어서도 지난 5, 6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스탠포드 테스트(Stanford Test) 결과 성적이 중상위권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3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았다. 물론 학생의 은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놀라운 결과였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학업 성취도 역시 공교육보다 높다는 것이다. (참: 1:7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겸손하게 필자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에서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세상의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714) 600-7700
▷웹사이트: www.ubmchurch.com

고 김수철 목사 추모의 시

그리운 이름



이경애 시인

비가 내리는 거리마다
가난한 영혼들의 휴식 공간
소망을 가슴에 묻으며
아침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네

밤을 온통 덮으며
길을 잃는 자의 천사
빛을 바랜 낡은 외투
스며드는 무지개 빛 시간되어
추위를 가려주던 따스한 담요
그토록 풍성한 음식들의 자리
꿈결같이 허기진 마음
넘어서던 호수

그 사랑의 나눔과
베짱의 손길 가득하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한 주님처럼
스스로가 낮아지며
조용히 섬기던
그 소중한 사람들 속의 사람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으리

이젠 천국의 삶이 준비되었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소서

이웃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실천
목사님의 부드러운 미소가
그리운 지금
슬픔을 헤쳐 그 고귀한 비전 위해
우리 함께 가리이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어

■ 감동을 주는 말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 생활에 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앤 그루델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구순구개열 증상을 갖고 태어나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금은 병원에서 구순구개열 수술이 가능하지만, 앤이 자랄 때만 해도 이것을 수술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서 늘 부모를 원망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다. 청각 테스트라는 것은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저편에서 담임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반복하는 일이었다. 앤의 순서가 되자 선생님은 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앤, 나는 정말 네가 내 딸

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반복하는 대신 “정말이세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앤의 말을 알아차리고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이 말은 앤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감동을 주는 말 한 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정말 네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어”.

그 말이 우리 삶에 감동이 되었으면 치기를 기대해 본다.
한다. 그래서 삶의 다이얼핀이 용솟음

글=목회자사모신문 설동욱 발행인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

성경통독의 길잡이 **썩 난 지팡이**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 특히 평신도들에게 방대한 분량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성경 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선교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썩 난 지팡이>를 펴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입문의:(213)434-0033(이학진 장로), (323)766-8793~5(JOY 기독교백화점)

구입처:JOY 기독교백화점(3170 W. Olympic Blvd, #E, Los Angeles, CA 90006)



이학진 지음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파란 장미를 좇는 세상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파란 장미(a blue rose)’를 본적이 있는지? 그 꽃말은 ‘불가능한 것’, ‘가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것을 만드는데 거듭 실패했다. 그 꽃말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붙여진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다가 일본의 주류회사 산토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회사 플로리진과 13년간 공동연구 끝에 유전자를 조작해 파란 장미를 만들었다. 그 일본 기업은 피튜니아, 팬지 같은 파란 꽃에서 파란색을 내는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끄집어내 장미에다 집어넣는 실험을 수차례 하여 결국 파란 장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천 곳 실험실에서는 한숨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제껏 기울였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파란 장미를 만들어 낸 일본 기업이 수년간 쏟

아 부은 돈은 무려 3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세계 수천 곳의 실험실에서 파란 장미를 만들고자 쏟아 부은 돈을 모두 합하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과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파란 장미는 가치가 있는가?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과학자들의 실험 정신을 무시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들의 도전과 실험 정신이 인류 역사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파란 장미를 만든 그 일본 기업은 결국 돈방석에 앉았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다.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 투자한 그 돈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의 병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치료약 개발에 투자한다면, 후진국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전 세계에서 매일 기아로 사망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1만 8천명에 이르고 있고, 오염된 물과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5천명에 이른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사람의 눈요깃거리로 만든 파란 장미 한 송이보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사람의 생명,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도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이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서 필자가 지닌 생각

이 순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변하는 세상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인간이란 돈이 없으면 돈이, 집이 없으면 집이, 성적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이 모든 고민을 해소해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더욱 더 집착하는 탐욕의 화신이 되는 청맹과니다.

욕망과 비움 사이에 선 존재

영성가이자 인문학자인 조현은 그의 책 《그리스인생학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란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가. 누군가는 욕망을 키우고 키워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데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세속적 욕망을 포기한 채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낸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조차 인간 안에 요동치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다. ‘판도라 상자’로 유명한 판도라는 제우스의 계략에 의해 창조됐다. 아름다운 외모와 예술적 재능을 겸비했던 판도라는 그 상자를 열지 말라는 신적(神의)인 명령을 어기고 상자를 여는 바람에 그 상자에서 인류의 운명이 될 모든 죄악과 재앙이 튀어나왔다. 욕망에 의해 추동된 호기심이 가져온 재앙이었다. 계시록의 저자는 종말론적 현상의 하나로 사람의 영

혼조차 매대 대상이 되는 현실을 예로 들면서 개탄했다(계 18:13). 돈이 사람들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공간에 파리를 틀고 있는 맘몬과 벗한 거대한 욕망의 구렁이가 문제다.

우리 사회는 욕망과 비움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아니, 욕망과 절제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온갖 욕망의 노예로 정신적, 영적 불구가 돼 가고 있다. 성적 호기심으로 촉발된 욕망으로 인해 열지 말아야 할 동성에 상자를 열었고, 신적 영역에 도전하듯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를 맘대로 조작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듯 자신이 선과 악을 임의로 결정하는 주체인듯 교만하게 굴기도 한다. 그 결과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앞으로 떠맡게 될 것이다.

미국의 존경받는 컴퓨터 공학자 빌 조이는 2000년에,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생명공학, 정보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쓴 글의 제목은 “미래에 왜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Why the future doesn't need us)?”이다. 단순히 경고성 멘트라기보다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온갖 화려한 기술 문명이 이 땅에 건설되고 있을 때, 정신 문화와 영성과 삶의 질은 점점 폐쇄되고 있다.

욕망의 세상에서 현실적 영성으로 살아가기

잡인 30장에서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현실적 영성으로 아로새겨진 기도문이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얼마나 간단명료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도인가? 아굴은 허위에 빠지거나 거짓을 일삼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코람 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를 삶의 근본으로 삼는 지혜자에게는 거짓과 허위는 멀리 피해야 할 독소(毒素)가 아니던가? 아굴은 또한 결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서 자신을 지킬 내적인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이 과불급(過不及)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물질에 초연(超然)한 듯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구린내 나는 돈까지 쟁기려고 안달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을 일이다. 아굴이 적절한 재물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실제로는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위한 현실적인 기도였다. 현실과의 타협이 아닌, 현실적 영성(靈性)과 경건이 묻어나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란 장미가 아니라, 우리 안 경건의 밭에서 자라는 정결하고 소담한 영혼의 장미 한 송이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스물 두 번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야고보서 AD 57-62년 경

기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하며(마 13:55, 막 6:3, 행 15:13, 갈 1:19) 수신자는 모든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신득의의 교리에 대하여) 행함을 강조하는 신행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한다. 유대인의 사도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 설명, 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개인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AD 62-64년 경

사도 베드로는 박해(교회의 외부적 위기)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난은 성도들에게 분명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예수 안의 소망을 통하여) 인내를 가지라고 권고합니다(1:6-7).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도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AD 66-67년 경

외부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란과 핍박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베드로전서)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에 교회의 내부적 위기(거짓 교사들과 재림을 의심하는 세력)를 경계하여 사도 베드로는 올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주제는 ‘성결한 생활을 힘쓰라’입니다.

유다서 AD 68-75년 경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예수님 육친의 동생: 마 13:55, 막 6:3)이며 주제는 거짓 선지자(이단)를 공격하는 베드로전서 2장과 같은 맥락이다.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자유방임적인 생활을 하는 이단을 경고하기 위함(4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보편성이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을 말하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단회성을 가리킨다. 구원의 단회성은 그리스도의 구

원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신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구원을 행위로 말미암아 나누어 받든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행위를 할 때엔 구원을 받지만 다른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인해 구원의 확실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AD 85-95년 경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올바른 기독교인,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고 진리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랑, 빛, 생명’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AD 85-95년 경

이단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요한일

서와 같은 주제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고 올바른 기독교론을 강조합니다. 13절로 구성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짧으며 “첫째, 이단적인 교훈을 멀리할 것-이들과 교제도 하지 마라(9-10절),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행할 것(4-6절), 셋째,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1-3절)”을 요구합니다.

요한삼서 AD 90-95년 경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11절)’고 권고하며 그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옵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 우상숭배(21절),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이단의 죄 등은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죄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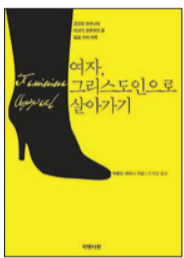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캐롤린 매하니 | 조계광 역 | 지평서원 | 264쪽

이제 여성의 역할이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 여성상인 현모양처, 가정주부는 이제 꺼려지는 역할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남편의 아내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인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따르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준다.



순례자의 노래
오스월드 챔버스 | 스테반 황 역 | 토기장이 | 120쪽

시편 120-134편은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노래'로 불리는데, 챔버스가 그 중 120-128편까지를 깊이 묵상한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대단히 논리적이었지만 유난히 시를 좋아해, 아무래도 그에게 시편 말씀은 각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난을 헤쳐 나가는 순례자의 노래들은 더욱 그렇다.



작은 일상 큰 은혜
마이클 A. 밀튼 | 김영경 역 | P&R | 264쪽

저자는 자신의 경험, 사건, 관계, 그리고 개인적 회상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올바른 신학적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보지만, 결코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은 따뜻한 메시지가 있어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



루케이도에게 배우는 복음
맥스 루케이도 | 오현미 역 | 아드폰테스 | 280쪽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렵게 느낄만한 주제인 '복음'을 루케이도만의 친근하고 쉬운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준다. 잠깐이면 외울 만큼 짭짤한, 그러나 2000년 세월의 풍파와 의심을 견뎌낸 만큼 견고한,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피면서 구원의 비밀을 밝혀나간다.



REVIEW

존 파이퍼 목사 “그 시절,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이슈&책] 인종 문제 정면에서 다룬 「차별없는 복음」

인종차별 이슈로 들끓고 있는 짐머만 사건에 대해 최근 자신의 견해를 블로그(DesiringGod.org)를 통해 피력한 존 파이퍼 목사는, '인종 문제'를 최신작 「차별없는 복음(Bloodlines: Race, Cross, and the Christian·두란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는 책에서 “그 시절(1960년대) 나는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고백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내 태도와 행동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백인우월주의가 배어 있었다. 나는 루시 외에는 흑인을 아무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루시는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거들었다. 나는 루시를 좋아했지만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관계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젊은 날을 “값이아 할 빛”이라 표현한다. 그러던 존 파이퍼는 대학 시절 '인



존 파이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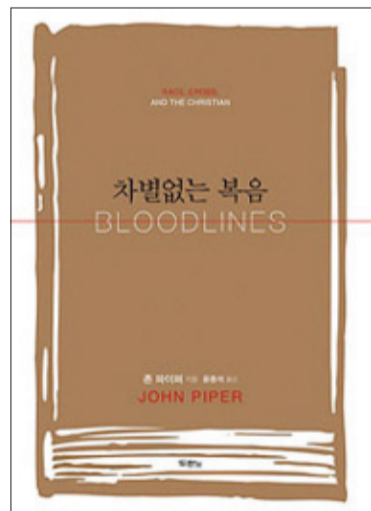
종간 결혼'이라는 문제와 부딪히면서 인종차별을 실감하게 됐고, '인종간 결혼의 윤리'라는 연구논문을 쓰게 된다. 그리고, 네 아들을 낳은 이후 딸을 달라고 기도하던 파이퍼는 50세에 흑인 소녀를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성공한 다민족 지도자'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인종간 다양성과 화합'을 궁극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루려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존 파이퍼는 “교회들이 인종 문제에 있어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이 문제만 중시해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교회는 사회의 '온도 조절기'이기 때문이며, 교회의 주된 소명은 '사랑과 나머지 모든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간 문제가 발생하지만, 존 파이퍼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그들의 개인적인 노예 경험 등을 이유로 '흑백간'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리고 민권운동이 벌어진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짐머만 사건에서 보듯 흑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15-29세 흑인 남성 사망원인 1위는 '피살'이며, 흑인 남성의 평균 수명(69세)은 백인 남성(75세)보다 6세나 적다. 일부 도시에서 흑인 남성의 고교 중퇴율은 50%가 넘고, 젊은 흑인 남성들의 자살률은 수십 년간 100% 이상 증가했다. 그는 “백인과 흑인 모두 타락했다”고 일갈한다. 존 파이퍼가 제시하는 돌파구는, 백



차별없는 복음
존 파이퍼 | 윤종석 역 | 두란노 | 372쪽

하지만 당연한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의 복음은 이념, 철학, 방법론,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

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침투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적·결정적·폭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 복음은 정치가들과 사회 운동가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폭발하는 것이지, 그들의 사회적 강령을 꾸며 주는 틀이 아니다.” 복음은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러한 '복음'은 무서운 위력으로 인종차별의 교만과 무력한 두려움, 질명적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탄을 떨하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교만으로 패배한 인종간 긴장의 위력을 꺾고, 절망 너머 희망을 가져다 주며, '흑(黑)역사'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흑인들의 자존감을 심어 준다. 또 인종차별을 뒤에서 부추기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4층)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8월 15일 까지입니다.

Tel. 562.900.2399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신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신앙동화 '바다거북 이야기'



그레이스 노 선교사 다음세대 시선 담아 창조의 신비 풀어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찾아가는 시리즈(1) 부영이와 바다거북의 모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성애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의 근심과 고민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최근 의무화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교육을 비롯해 진화론 등 이른바 '반기독교 코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난무하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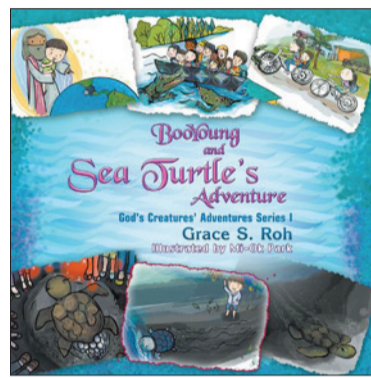
그레이스노 선교사

로 7년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바다거북의 신비를

지 알을 낳고 또 알들이 안전하게 부화될 수 있도록 모래 흙으로 다시 꼼꼼히 덮은 다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 속으로 간다. 이 장면을 보면서 부영이는 어미 거북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임을 떠올리게 된다.

이튿날 새벽, 아직 미명 가운데 있을 때에 부영이는 앞에서 깨어나는 아기 거북을 보러 엄마와 함께 바닷가로 나간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나타난 동물들을 피해 바다로 가는 아기 거북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자연의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경탄을 자아낸다.

혹자는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픈 부모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아이들과 함께 목련꽃과 새 소리, 달과 별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요한복음 1장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나와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찾아가는 시리즈(1): 부영이와 바다거북의 모험〉 책 표지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남미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그의 아들 부영이와 함께 한 실화를 엮은 '바다거북 이야기'는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해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번 출간에 이어 앞으로도 후속편 '꼬마 돌고래 이야기', 볼리비아에서 서식하는 '아주 알미운 새 이야기', 그리고 '펭귄 이야기' 등을 기획, 자녀들과 함께 직접 탐험한 뒤 어린 아이의 시선을 담아 책을 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레이스 노 선교사는 남미 출신 선교사지망생들을 훈련시켜 장차 이슬람 선교는 물론 전 세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것으로 내보낸다는 비전을 갖고 10여명의 볼리비아 청년들을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볼리비아와 페루만 해도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가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파악한 인원만 대략 5-6천여명 상당에 달한다고.

노 선교사는 "남미 사람들에게는 이슬람 종교권이나 아랍지역이 그다지 낯설지 않다. 이미 500년이 넘도록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모도 이슬람 현 지인들과 매우 닮아있어 선교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이슬람권 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이나 공산국의 경우, 분명하면서도 잘 준비된 독특한 선교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지에 파송할 선교인력들을 말씀 사역자만이 아닌 의료전문인으로 세워 복음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남미선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구입은 아마존닷컴(Amazon.com)과 만즈앤노블(Barns and Nobles bookstore)을 통해 주문하거나, 저자 그레이스 노 선교사(전화 213-999-6076 / 이메일 gracesroh@gmail.com)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bpra.com/GraceSRoh)를 참고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고, 인종간·민족간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과 충만한 열정도 선물한다.

그는 2백년 전 노예 매매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용감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들도 인종간 다양성과 화합을 추구하는 일에 좀더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나라는 '피부색'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예수의 피의 능력, 즉 '예수의 혈통'은 인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극과도 같은 현대의 인종 문

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엡 2:13)'고 그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 중 하나는 불화한 민족 집단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그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성과 화합을 추구하면서, 너무 지치고 상처가 많아 포기하기로 마음먹기 쉬운데, 저자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변화를 주면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전략을 써 보는 등 다시 시작하라"고 당부한다.

파이퍼가 사랑하는 개혁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은 모든 면에서 인종 차별주의를 허물도록 돼 있다(예 5:9).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불가항력적인) 은총'이고, 이제 우리는 모두 인종을 넘어 '예수의 혈통'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차별에 대해서도 죽어야 하고, 세상의 잣대로 차별해선 안 된다.

그가 초반에 언급했던 인종간 결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종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며, 성경이 금하는 것은 비신자와의 결혼이지, 다른 인종간 결혼은 아니다. 저자는 "인종간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종을 멀리하고

경멸하고 적대하는 원인"이라며 "인종간 결혼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돈과 권력의 문화가 지배하고 압제한다"고 썼다.

파이퍼의 이러한 표현은 미국에서 인종간 결혼의 문제가 그만큼 사회

이슈 중 하나임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증가하는 탈북민, 멀지 않은 통일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인종 문제를 '예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대용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교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세부전공:

신학 Theology,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심리학 Psychology, 선교학 Missiology,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EVIS I-20 발행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과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빙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복용2년]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젊은 샐리온! 자동차 엔젤 커버

\$30 강력안염이온 • 원적외선 방사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력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대인기발매 \$3,900

로메오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PEOPLE

“미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소통 실패”

티모시 켈러 목사, 트위터 팔로워들과 Q&A서 지적

뉴욕의 리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 목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서 주려낸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12개 질문에 대해 답했다.



티모시 켈러 목사

이 가운데 유명한 시인인 제퍼슨 버스케(Jefferson Bethke)와의 대화도 포함돼 있었다. 버스케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이내 켈러 목사의 답이 “매우 진실되고 선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트위터로 진행된 Q&A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버스케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Why I Hate Religion, But Love Jesus)’라는 제목의 저서로 유명하며, 그와 켈러의 대화는 약 500번 이상 리트윗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버스케는 “나의 세대에 어떤 종교·

권면을 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켈러는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세대이다. 왜냐하면 자유와 선택이 필수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논평자인 레이첼 헬드 에반스(Rachel Held Evans)가 “1977년과 1992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Millennium) 세대들이 더욱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켈러는 “이들은 더욱 반제도적(anti-institutional)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타이 부머(Boomer)

세대보다 심각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기독교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우리의 신앙이 소통에 실패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질문은, 미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3가지 형용사로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켈러 목사는 “구부러지고(Fractured), 하찮아지고(Marginalized), 희망적(hopeful)”이라고 대답했다.

켈러는 또한 진정한 교회가 가진 3가지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 성찬식 거행, 성경적인 교회 훈련”이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또한 자신의 영성훈련에 대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시편 전체를 1독하고, 매년 성경을 1독한다.”

17세기 철학자이자 작가인 존 오웬(John Owen)의 책 ‘죄 죽이기’를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켈러 목사는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원인과 치유’라는 책을 권하기도 했다.

켈러의 트위터 태그는 #askTK이며 이번 Q&A를 통해 팔로워가 53,000명 가량 늘었다. 켈러 목사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이번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트위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됐던 단어는 ‘복음’, ‘믿음’, ‘죄’, ‘그리스도’였다.

강혜진 기자

티모시 켈러는 기독교계의 탁월한 변증가이자, 복음은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목회자이다. 뉴욕에 위치한 그의 교회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내고 있다. 그는 저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Prodigal God)’으로도 유명하다.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는 “만인제사장 정신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주주의, 곧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다만 그런 하나님 앞에 직분의 구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다는 것이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는 “만인제사장 정신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주주의, 곧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다만 그런 하나님 앞에 직분의 구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다는 것이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BIZ

발목 통증 호소하던 추신수 선수, 자생한방 치료 효과 ‘톡톡’

다저스와의 경기 중 발목 삐끗한 추신수, 추나수기요법으로 교정
추신수 선수 치료 지켜보던 라이언 하니건 선수도 손목치료 자청

미국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가 LA다저스와의 4차전 경기 종료 후 도루를 하다 발생한 발목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에게 한방치료를 받았다.

추신수 선수는 29일(이후 한국시간) 8회초 공격 중 도루를 하다 발목을 삐끗해 통증을 호소하며, 당시 경기를 관람 중이던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에게 직접 전화연결을 해 치료를 요청했다.

추 선수의 상태를 살펴 본 신준식 박사는 “도루 중 발목이 꺾여 통증과 붓기가 있고 발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다”고 설명하고 곧바로 추나수기요법으로 발목을 교정하고 손상된 인대와 근육을 침으로 치료했다. 추신수 선수는 치료 즉시 통증이 사라지며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믿을 수 없다!(Unbelievable)”며 놀라워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같은 팀 포수인 29번 라이언 하니건(32·신시내티 레즈) 선수는 자신도 치료해 달라며 스스로 손목치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신수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활

동을 시작할 때부터 부상치료를 받아온 추신수 선수를 위해 미국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류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을 위해 LA를 방문한 추 선수는 당시 LA자생한방병원을 찾은 신준식 박사를 만나 컨디션 조절을 위한 치료를 요청했다.

3차례의 한방치료로 컨디션과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본 추신수 선수는 LA자생한방병원과 신준식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신준식 박사는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건승을 기원한다. 아울러 추 선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생이 힘이 될 것”이라며 추신수 선수의 컨디션 조절과 스테미너 향상을 위해 보약인 육공단을 선물했다.

이번 신시내티 레즈와 LA다저스의 경기는 메이저리그 타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출루머신’ 추신수와 올해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 ‘괴물’ 류현진의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맞대결로 한국 팬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박창민 기자



추신수 선수(왼쪽)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오른쪽)에게 발목 치료를 받고 있다.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상경추 교정

경추 교정

척추 교정

체형 교정

관절염

자세 교정

허리 디스크 교정

골반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정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8월 스페셜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2013 ACCENT G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7,340 (STK #115126)
PH HYUNDAI D/C \$889 MILITARY REBATE \$500
VALUED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02299)
PH HYUNDAI D/C \$1,328 LEASE CASH \$1,000
VALUED OWNER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069499)
COLLEGE REBATE \$4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SALES
로버트 정
323.839.7074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